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 및 의식조사

박 상 옥[†]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Research of Utilization and Awareness on the Traditional Food of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Sang-Wook Park[†]

Dept. of Food and Nutri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301-841, Korea

Abstract

To investigate of the utilization and awareness on the traditional foods of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104 male students(26.8%) and 282 female students(73.2%) were surveyed by the questionnaire. The traditional foods surveyed were Korean sauce, rice cake, Korean cookies, Korean soft drinks, *kimchi* and ritual foods. Among respondents, 56.5% answered that they had made Korean sauce at home, and 66.2% replied the reason why was because home made Korean sauce had much better tastes than other instant Korean sauces. 40.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ould make Korean sauce at home after getting married. 61.2%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liked the rice cake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x($P<0.001$). Most respondents(50.7%) ate the rice cakes at traditional holidays. They liked *Injulmi* the most(28.4%)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x($P<0.001$); males liked *Injeolmi* better and females *Patsirooduk*. 47.4% of respondents liked the Korean cookies and 68.3% of them replied that the reason was because they were tasty. 71.1% of respondents ate Korean cookies at traditional holidays. 53.93% of respondents ate Korean soft drinks at traditional holidays and 68.1% of them made them at home. 81.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ould make *Kimchi* at home instead of buying at market after they married; 65.2% of them answered the reason why was because home-made ones were tastier. For ritual foods for traditional ceremony, 52.2%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not use order and delivery service, and if they would use them, 60.5% respondents said because it might be convenient because it took much time to prepar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x distinctions.

Key words : Awareness of traditional food, Daejeon, university students.

서 론

한 나라의 식생활 문화는 그 나라의 지리적, 자연적,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며 식생활 양식은 오래 동안 지켜온 식습관과 새로운 생활양식에 따라 변화한다(Lee JM & Oh SY 1996). 한국인의 식생활은 산업의 발달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주거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해 외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식품을 가정단위에서 준비하여 소비하던 생활에서 대량 생산된 전통식품을 이용하는 등의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음식에 대한 기호도나 현대생활 양식

을 반영하는 가치관이 식생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Che KE 2001).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은 장류와 김치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전통식품의 매출현황에서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품목은 장류, 한과류, 김치류, 음청류 등으로 나타났다(Che KE 2001).

근래 대학생들에 의해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개발하려는 경향은 있으나 조리의 편리성을 선호하여 보다 편리한 가공식품과 외래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의 식습관은 가정식탁문화에서 자유식탁문화로 전환되는 시기의 연령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Koo NS 1995). 이에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소비실태나 소비층의 의식을 조사하여 대학생층이 전통음식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Park, Tel: 016-467-1908, E-mail: psw912@hanmail.net

한국전통식품에 관련된 연구로는 의식과 기호에 관한 조사연구(Lee HG & CH MY 1995, Koo NS 1995, Jang et al 1996, Han et al 2000, Han et al 2001), 섭취실태 및 이용에 관한 연구(Kim JH 1995, Lee JM & Oh SY 1996, Goo KH 1999, Kim HH 2002), 인지도에 관한 연구(Park YS 1998, Joo et al 2001, Kim ES & Ham SS 2001, Kim SM 2001, Rho JO & Woo KJ 2003, Kim et al 2003) 등이 있으나 대부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이용과 의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 전통음식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전통음식 문화를 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각 조사원들이 대학생들에게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자들이 설명하여 조사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총 410부의 설문지를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386부(회수율 94.1%)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관련문헌(Koo NS 1995, Jang et al 1996, Lee JS 1998, Lee HJ 2000)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 2문항과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 및 의식조사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형태로 구성하였고, 전통음식의 이용 및 의식조사에서는 장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김치, 제례음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자료의 통계분석

조사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각 문항에 대해 빈도수,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수간에 유의성을 χ^2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장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김치 등의 이용도 및 제례음식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은 Table 1과 같다. 성별분포로는 남학생 104명(26.75%), 여학생 282명(73.25%)으로 전체 386명 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남학생은 24~29세(54.37%), 여학생은 21~23세(68.09%)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21~23세(57.40%), 24~29세(22.86%), 19~20세(1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재 가정에서 장류를 담그어 먹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담그어 먹는다'가 56.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끔 담근다' 17.97%, '사서 먹는다' 15.10%, '친지에서 가져온다' 10.4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류를 담그어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맛이 더 있으므로' 66.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들이 원하므로' 15.43%, '비용이 적게 들므로' 9.65%, '위생적이므로' 8.6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비용이 적게 들므로'에서 남학생이 14.63%로 여학생 7.86%보다 높게 나타났고, '위생적이므로'에서 여학생이 10.92%로 남학생 2.44%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장류를 담그어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귀찮아서'가 36.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드는 데 복잡한 것 같아서' 25.95%, '주거환경이 적절치 못하므로' 18.38%, '만들지 못하므로' 12.43%, '집보다 더 맛이 있으므로' 7.03%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가정에서 장류를 담그어 먹는 어머니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40~50세 연령에서 5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60세 43.17%, 60~70세 이상은 3.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천시 지역 주부들이 '장류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의 비율이 40~49세에서 62%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Goo et al 1999). 성별간에는 40~50세 연령 어머니에서 여학생이 60.43%로 남학생 31.25%보다 높았고, 50~60세 연령 어머니에서 남학생이 62.50%로 여학생 36.60%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결혼후 장류를 담그어 먹겠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서 먹겠다'에서 40.11%로 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Item	Male	Female	Total
Age			
19~20	13(12.62)	58(20.57)	71(18.44)
21~23	29(28.16)	192(68.09)	221(57.40)
24~29	56(54.37)	32(11.35)	88(22.86)
30 over	6(4.85)	0(0.00)	6(1.30)
Total	104(26.75)	282(73.25)	386(100.0)
	$\chi^2=98.318$	DF=3	$P<0.001$

Table 2. Use of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auces

N(%)

Item	Male	Female	Total
Do you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at home?			
Always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56(54.37)	161(57.30)	217(56.51)
Occasionally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14(13.59)	55(19.57)	69(17.97)
Use home-made fermented sauces from relatives home	12(11.65)	28(9.96)	40(10.42)
Use commercial products	21(20.39)	37(13.17)	58(15.10)
Total	103(26.82)	281(73.18)	384(100.0)
	$\chi^2=4.422$	DF=3	NS
What is the reason you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For the economical reasons	12(14.63)	18(7.86)	30(9.65)
For the better taste	54(65.85)	152(66.38)	206(66.24)
For sanitary reasons	2(2.44)	25(10.92)	27(8.68)
For the requests from family	4(17.07)	34(14.85)	48(15.43)
Total	82(26.37)	229(73.63)	311(100.0)
	$\chi^2=8.0627$	DF=3	$P<0.05$
What is the reason you do not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The making process is troublesome	23(41.07)	44(34.11)	67(36.22)
I don't know how to make it	6(10.71)	17(13.18)	23(12.43)
I assume the process is complex	11(19.64)	37(28.68)	48(25.95)
I don't have proper space to make it	12(21.43)	22(17.05)	34(18.38)
Commercial products taste better	4(7.14)	9(6.98)	13(7.03)
Total	56(30.27)	129(69.73)	185(100.0)
	$\chi^2=2.351$	DF=4	NS
How old is the person making home-made fermented sauces?			
40~50	25(31.25)	142(60.43)	167(53.02)
50~60	50(62.50)	86(36.60)	136(43.17)
60~70 over	5(6.25)	7(2.98)	12(3.81)
Total	80(25.40)	235(74.60)	315(100.0)
	$\chi^2=20.535$	DF=2	$P<0.001$
Are you going to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after marrying?			
I am going to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38(37.62)	86(30.94)	124(32.72)
I am going to buy fermented sauces	39(38.61)	113(40.65)	152(40.11)
I am going to bring home-made fermented sauces from relatives home	24(23.76)	79(28.42)	103(27.18)
Total	101(26.65)	278(73.35)	379(100.0)
	$\chi^2=1.680$	DF=2	NS
What is the reason you want to make home-made fermented sauces?			
For the better taste	29(32.95)	39(16.46)	68(20.92)
For protecting traditional food	21(23.86)	66(27.85)	87(26.77)
For the economical reasons	5(5.68)	23(9.70)	2 (8.62)
For sanitary reasons	33(37.50)	109(45.99)	142(43.69)
Total	88(27.08)	237(72.92)	325(100.0)
	$\chi^2=10.994$	DF=3	$P<0.01$

NS: not significant.

장 높았고, 다음으로 '담그어 먹겠다' 32.72%, '친지에서 가져 온다' 27.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 장류를 담그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서 담그는 것이 위생적이므로'에서 43.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식품을 보수해야 하므로'에서 26.77%, '사 먹는 것이 맛이 없어서' 20.92%, '비용이 절약될 것 같아서' 8.6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사 먹는 것이 맛이 없어서'에서 남학생이 32.95%로 여학생 16.46%보다 높게 나타났고, '집에서 담그는 것이 위생적이므로'에서 여학생이 45.99%로 남학생 37.50%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떡류의 이용도에 대해서는 Table 3과 같다. '떡류를 좋아하니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아한다'에서 61.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34.90%, '싫어한다' 3.9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좋아한다'에서 여학생이 64.64%로 남학생 51.92%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떡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서'가 49.62%, '빨리 굳으므로' 31.58%, '가격이 비싸서' 18.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떡의 맛에 대한 개선과 굳지 않는 떡으로 보존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떡의 이용시기에 대해서는 '명절, 잔치 때 이용한다'에서 50.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끔 먹는다'에서 39.95%, '자주 먹는다'에서 6.27%, '거의 안 먹는다' 3.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떡은 우리 식생활에서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자주 이용하

Table 3. Use of rice cakes

N(%)

Item	Male	Female	Total
Do you like rice cakes?			
I like it	54(51.92)	181(64.64)	235(61.20)
Indifferent	40(38.46)	94(33.57)	134(34.90)
I dislike it	10(9.61)	5(1.79)	15(3.91)
Total	104(27.08)	280(72.92)	384(100.0)
	$\chi^2=15.724$	DF=2	$P<0.001$
What is the reason that you dislike rice cakes?			
It doesn't taste good	25(53.19)	41(47.67)	66(49.62)
It is expensive	4(8.51)	21(24.42)	25(18.80)
It becomes hardened quickly	18(38.30)	24(27.91)	42(31.58)
Total	47(35.34)	86(64.66)	133(100.0)
	$\chi^2=5.317$	DF=2	NS
When do you have rice cakes?			
I often have rice cakes	5(4.85)	19(6.79)	24(6.27)
I occasionally have rice cakes	36(34.95)	117(41.79)	153(39.95)
I have rice cakes on holidays	57(55.34)	137(48.93)	194(50.65)
I seldom have rice cakes	5(4.85)	7(2.50)	12(3.13)
Total	103(26.89)	280(73.11)	383(100.0)
	$\chi^2=3.272$	DF=3	NS
What's your favorite rice cakes?			
Kyungdan	13(12.62)	40(14.23)	53(13.80)
Injulmi	39(37.86)	70(24.91)	109(28.39)
Songpyun	25(24.27)	41(14.59)	66(17.19)
Julpyun	5(4.85)	38(13.52)	43(11.20)
Patsirooduk	9(8.74)	47(16.73)	56(14.58)
Jungpyun	1(0.97)	4(1.42)	5(1.30)
Galaeduk	6(5.83)	26(9.25)	32(8.33)
Etc	5(4.85)	15(5.34)	20(5.21)
Total	103(26.82)	281(73.18)	384(100.0)
	$\chi^2=18.278$	DF=7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4. Use of traditional Korean cookies

N(%)

Item	Male	Female	Total
Do you like traditional Korean cookies?			
I like it	60(57.69)	122(43.57)	182(47.40)
I dislike it	7(6.73)	34(12.14)	41(10.68)
Indifferent	37(35.58)	124(44.29)	161(41.93)
Total	104(27.28)	280(72.92)	384(100.0)
	$\chi^2=9.923$	DF=2	$P<0.05$
What is the reason that you like traditional Korean cookies?			
It tastes good	62(77.50)	117(64.29)	179(68.32)
It uses good material	5(6.25)	11(6.04)	16(6.11)
It looks tasty	5(6.25)	28(15.38)	33(12.60)
It is traditional food	8(10.00)	26(14.29)	34(12.98)
Total	80(30.53)	182(69.47)	262(100.0)
	$\chi^2=5.892$	DF=3	NS
What is the reason that you dislike traditional Korean cookies?			
It doesn't taste good	13(43.33)	59(60.20)	72(56.25)
It don't usually it them	16(53.33)	28(28.57)	44(34.38)
It doesn't look tasty	0(0.00)	4(4.08)	4(3.13)
No particular reasons	1(3.33)	7(7.14)	8(6.25)
Total	30(23.44)	98(76.56)	128(100.0)
	$\chi^2=7.017$	DF=3	NS
When do you have traditional Korean cookies?			
I often have traditional Korean cookies	0(0.00)	5(1.77)	5(1.30)
I occasionally have traditional Korean cookies	26(25.49)	53(18.79)	79(20.57)
I have traditional Korean cookies on holidays	72(70.59)	201(71.28)	273(71.09)
I seldom have traditional Korean cookies	4(3.92)	23(8.16)	27(7.03)
Total	102(26.56)	282(73.44)	384(100.0)
	$\chi^2=5.356$	DF=3	NS

NS: not significant.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Jang et al 1996) 떡은 '명절, 잔치 때만 이용한다'에서 20.3%, '가끔 먹는다' 57.1%로 본 연구의 대학생들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좋아 하는 떡으로는 전체적으로 인절미가 28.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송편 17.19%, 시루떡 14.58%, 경단 13.80%, 절편 11.20%, 가래떡 8.33%, 기타 5.21%, 증편 1.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남학생이 좋아하는 떡으로는 인절미 37.86%로 여학생 24.91%보다 높았고, 송편은 남학생 24.27%로 여학생 14.59%보다 높았다. 반대로 여학생이 좋아하는 떡은 절편 13.52%로 남학생 4.85%보다 높았고, 시루떡

은 여학생 16.73%로 남학생 8.74%보다 높았으며 가래떡은 여학생 9.25%로 남학생 5.83%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Kang & Lee(2000)가 연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29세의 수도권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은 팔시루떡이 15.8%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학생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Cho et al(2002)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떡은 흰떡, 꿀떡, 절편 등으로 본 연구의 대학생들의 선호도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등학생은 인절미를 20.7%로 가장 좋아했고, 약식, 백설기, 송편, 가래떡, 시루떡 순으로 나타나 인절미는 본 연구와 같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었고 그 이외의 떡은 차이를 보였다(Lee & Oh

1995). 한편 인천지역 대학생중 여학생은 시루떡을 가장 싫어하였는데 (Rho & Woo 2003) 본 연구와는 대조적이었으며, 수도권 대학생들은 인절미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Lee JS 1998)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과의 이용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한과를 좋아합니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아한다'에서 47.40%로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는 41.93%, '싫어한다'는 10.6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5$) '좋아한다'에서 남학생이 57.69%로 여학생 43.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싫어한다'는 여학생 12.14%로 남학생 6.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과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맛이 좋아서'가 68.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유의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가 12.98%, '모양, 색상이 보기 좋아서' 12.60%,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가 6.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과를 싫어하는 이유로서는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서'가 56.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상시 먹어 보지 못해서' 34.38%로 나타났으며 '무조건 거부반응이 생기므로' 6.25%, '모양, 색상이 좋지 않아서' 3.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맛이 좋아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과를 싫어하는 사람은 '맛이 없어서' 또는 '평상시 먹어 보지 못해서'에서 나타났으므로 한과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과의 이용시기는 '명절, 잔치 때'에서 7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끔 먹는다'에서 20.57%로 '거의 안 먹는다' 7.03%, '자주 먹는다' 1.30%로 나타나 아직도 한과는 어떤 특정한 날에 먹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Chang et al(1996)의 연구에서 주부들의 한과의 섭취는 '잔치, 명절에만 먹는다'는 응답이 59.5%로 본 연구보다 낮았으며, 대구지역 주부들은 '잔치, 명절에만 먹는다'가 77.4%(Kim HH 2002)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한과가 특별한 행사날에만 먹는 음식으로 굳어져가고 있고 여전히 대중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음청류의 이용에 대해서는 Table 5와 같다. 음청류의 이용시기는 전체적으로 '명절, 잔치 때에 이용한다'에서 53.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주 이용한다'에서 23.56%, 그 다음 '겨울철에 이용한다' 12.83%, '잘 안 먹는다' 6.28%, '여름철에 주로 이용한다' 3.40%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음청류인 식혜, 수정과는 아직도 평상시의 음료로 인식이 안되고 명절, 잔치 때 특별한 날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자주 이용한다'에서는 남학생이 33.65%로 여학생 19.78%보다 높게 나타났고, '명절, 잔치 때에만 이용한다'에서는 여학생이 56.12%로 남학생 48.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주부들이 '음청류를 명절, 잔치 때 먹는다'에서 31.9%로 본 연구의 53.93%보다 낮아 차이를 보였다(Chang et al 1996). 음청류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에서 만든다'에서 68.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잔치집에서 이용한다'가 16.36%, '시중에서 산다'가 15.04%, '전문집에서 맞춘다' 0.53% 순으로 나타나 음청류는 다른 가공식품과는 달리 이용도면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5$),

Table 5. Use of traditional drinks

N(%)

Item	Male	Female	Total
When do you have traditional drinks?			
I have traditional drinks on holidays	50(48.08)	156(56.12)	206(53.93)
I often have traditional drinks	35(33.65)	55(19.78)	90(23.56)
In Winter time	14(13.46)	35(12.59)	49(12.83)
In Summer	2(1.92)	11(3.96)	13(3.40)
I seldom have traditional drinks	3(2.88)	21(7.55)	24(6.28)
Total	104(27.23)	278(72.77)	382(100.0)
	$\chi^2=10.678$	DF=4	$P<0.05$
Where do you get traditional drinks?			
I make it at home	64(62.75)	194(70.04)	258(68.07)
I get it from feast house	12(1.76)	50(18.05)	62(16.36)
I buy it from market	24(23.53)	33(11.91)	57(15.04)
I get it from professional shop for traditional drinks	2(1.96)	0(0.00)	2(0.53)
Total	102(26.91)	277(73.09)	379(100.0)
	$\chi^2=14.503$	DF=3	$P<0.005$

시중에서 주로 산다'에서는 남학생이 23.53%로 여학생이 11.9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잔치집에서 주로 이용한다'에서 여학생이 18.05%로 남학생 11.76%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이 음청류는 주로 사다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Chang et al 1996).

김치의 이용에 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결혼 후 김치를 담그어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에서 '담글 것이다'에서 81.25%로 가장 높았고, '가끔 담그어 먹겠다' 8.59 %, '친지에서 가져오겠다' 8.07%, '사서 먹겠다' 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천시지역 주부들이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고 한 응답이 89.7%로(Goo KH 1999) 본 연구에서 결혼후 대학생들이 김치를 담그겠다고 한 응답이 81.25% 나온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은 김치가 전통음식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 충북지역 주부들의 김치 사용 실태조사에서 향후 시판 김치 조사 여부에 대해 73.2%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Lee 2000) 이는 현재 대학생들의 생각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Kim & Kim (1998)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결혼후 '김치를 직접 담그어

먹겠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혼후 김치를 담그어 먹으려는 이유로는 '맛이 더 좋아서'가 6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위생적이어서'가 25.41%, '비용이 적게 들어서'가 9.39%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05$), '맛이 더 좋아서'에서는 남학생이 79.38%로 여학생 60.0%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위생적이어서'에서는 여학생이 29.06%로 남학생 15.4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김치를 사서 먹으려는 이유로는 '번거롭고 귀찮아서'에서 4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에서 39.05%, '맛이 더 좋아서' 7.62 %, '위생적이어서' 5.71%, '비용이 적게 들어서' 2.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충북지역 주부들이 시판 김치를 이용하는 이유 중 '시간이 없어서'는 33.7%, '편리하기 때문에' 37.8% 등으로 나타나(Lee HJ 2000) 본 연구에서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과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Kim & Kim(1998)의 연구에서 여대생이 결혼후 김치를 담아 먹지 않는 이유는 '번거롭고 힘들어서'가 36.3%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제례음식의 의식조사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주문

Table 6. Use of Kimchie

N(%)

Item	Male	Female	Total
Are you going to make home-made Kimchie after marrying?			
I am going to make home-made Kimchie	87(85.29)	225(79.79)	312(81.25)
I am going to bring home-made fermented sauces from relatives home	4(3.92)	27(9.57)	31(8.07)
I am going to buy Kimchie	3(2.94)	5(1.77)	8(2.08)
Occasionally I am going to make home-made Kimchie	8(7.84)	25(8.87)	33(8.59)
Total	102(26.56)	282(73.44)	384(100.0)
	$\chi^2=3.826$	DF=3	NS
What is the reason you want to make home-made Kimchie?			
For the better taste	77(79.38)	159(60.00)	236(65.19)
For sanitary reasons	15(15.46)	77(29.06)	92(25.41)
For the economical reasons	5(5.15)	29(10.94)	34(9.39)
Total	97(26.80)	265(73.20)	362(100.0)
	$\chi^2=11.787$	DF=2	$P < 0.005$
What is the reason you don't want to make home-made Kimchie?			
For the better taste	3(8.82)	5(7.04)	8(7.62)
For sanitary reasons	3(8.82)	3(4.23)	6(5.71)
I don't have enough time to make home-made kimchie	10(29.41)	31(43.66)	41(39.05)
To make home-made kimchi is troublesome	15(44.12)	32(45.07)	47(44.76)
For the economical reasons	3(8.82)	0(0.00)	3(2.86)
Total	34(32.38)	71(67.62)	105(100.0)
	$\chi^2=9.145$	DF=4	NS

NS: not significant.

Table 7. Research about notion of food for ancestor memorial ceremony

N(%)

Item	Male	Female	Total
Are you going to use commercial food for ancestor memorial ceremony?			
I am going to use it	11(11.00)	18(6.41)	29(7.61)
Occasionally I am going to use it	35(35.00)	118(41.99)	153(40.16)
I am not going to use it	54(54.00)	145(51.60)	199(52.23)
Total	100(26.25)	281(73.75)	381(100.0)
	$\chi^2=3.025$	DF=2	NS
What is the reason you don't want to use commercial food for ancestor memorial ceremony?			
It doesn't have manners for the ancestors	21(27.27)	64(31.68)	85(30.47)
I enjoy the process to make food	39(50.65)	103(50.99)	142(50.90)
I assume it is expensive	6(7.79)	20(9.90)	26(9.32)
I don't think it is sanitary	11(14.29)	15(7.43)	26(9.32)
Total	77(27.60)	202(72.40)	279(100.0)
	$\chi^2=3.438$	DF=3	NS
When can you use commercial food for ancestor memorial ceremony?			
When I have no time to prepare	46(64.79)	127(59.07)	173(60.49)
When I am sick	11(15.49)	59(27.44)	70(24.48)
When it seems cheap	1(1.41)	0(0.00)	1(0.35)
When the process is troublesome	13(18.31)	29(13.49)	42(14.69)
Total	71(24.83)	215(75.17)	286(100.0)
	$\chi^2=7.275$	DF=3	NS

NS: not significant.

배달에 의해 제례음식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안할 것이다'에서 52.2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끔 이용할 것이다' 40.16%, '이용할 것이다' 7.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문 배달 음식을 이용 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모여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우므로'에서 50.90%로 가장 높았고,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에서 30.47%,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9.32%, '위생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9.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주문 배달하여 제례음식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을 경우 편리하므로'에서 60.49%로 가장 높았고, '몸이 불편해 준비할 수 없을 경우' 24.48%, '번거롭고 귀찮아서' 14.69%, '비용이 적게 들것으로 생각되어' 0.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제례음식의 인식은 아직도 전통적인 생각을 많이 고수하는 편이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불편할 때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장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김치, 제례음식 등을 조사하였다. 현재 가정에서 장류를 담그어 먹는가에 대해서는 '담그어 먹는다'에서 5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서 먹는다'는 15.10%로 나타났고,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현재 장류를 담그어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맛이 더 있으므로'에서 66.24%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장류를 담그어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귀찮아서'가 36.22%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가정에서 장류를 담그어 먹는 어머니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40~50세 연령에서 5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후 장류를 담그어 먹겠다는가에 대해서는 '사서 먹겠다'에서 40.11%로 가장 높았고,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장류를 담그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에서 담그는 것이 '위생적이므로'에서 43.69%로 가장 높았다.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떡류를 좋아합니까에서는 '좋아한다'에서 61.20%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떡류의 이용시기에 대해서 '명절, 잔치 때 이용한다'에서

50.65%로 가장 높았고, 성별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좋아하는 떡으로는 인절미가 28.39%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간에는 남학생은 인절미, 송편, 여학생은 시루떡을 좋아한다고 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한과를 좋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7.40%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과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가 68.32%로 가장 높았고, 한과의 이용시기는 '명절, 잔치 때'에서 71.09%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음청류의 이용시기는 '명절, 잔치 때에 이용한다'에서 53.93%로 가장 높았고($P<0.05$), 음청류를 이용하는 장소로는 '집에서 만든다'에서 68.07%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결혼 후 김치를 담그어 먹겠는가에 대해서 '집에서 담글 것이다'에서 81.25%로 가장 높았고,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결혼후 김치를 담그어 먹으려는 이유로는 '맛이 더 좋아서'가 65.19%로 가장 높았고,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5$). 김치를 사서 먹으려는 이유로는 '번거롭고 귀찮아서'에서 4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례음식의 의식조사에서 주문배달에 의해 제례음식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안할 것이다'에서 52.23%로 가장 높았고, 성별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문배달하여 제례음식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을 경우 편리하므로'에서 60.49%로 가장 높았고, 성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 및 의식조사를 살펴본 결과 기호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맛의 개선과 편리함을 추구한 전통식품의 개발이 더욱더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지를 갖도록 하는 교육과 전통음식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헌

- Chae KE (2001) The status of production and export of Korean traditional foods. *Food Industry and Nutrition* 6: 1-4.
- Cho WK, Park HO, Kim SM (2002) A study on breakfast patterns and prefere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Incheon area. *Korean J Food & Nutr* 15: 50-57.
- Han JS, Han GP, Sung SH, Joe YS, Park KS, Kim OH, Jung JG (2000) A survey on awareness and use for traditional foods of housewives in Kyoung-buk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0: 480-494.
- Han JS, Hong JH, Suh BS, Byun JO (2001) Chi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kimchi.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1: 44-59.
- Jang EJ, Lee YK, Lee HG (1996) The study for consciousness dietary life behaviors on Korean traditional food. *Korean J Dietary Culture* 11: 179-206.
- Joo NM, Sim YJ, Lee KA, Jeong HS, Park SJ, Chun HJ (2001)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Americans residing in Korean for Korean traditional food.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 15-23.
- Kang KO, Lee HJ (2000) A study on the housewives cognition consumption pattern of Korean rice cake. *Korean J Soc Food Sci* 16: 505-510.
- Kim HH (2002)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preferences of Korean cookies of housewives in Daegu province. *J East Asian Dietary Life* 12: 280-288.
- Kim SM (2001) A study on the attitudes of the students in the Kyung-book area on the traditional foods. *J Korean Food Cookery Sci* 17: 139-148.
- Kim ES, Ham SS (2001) The survey on the practice of ancestral service food in Chu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1: 235-246.
- Kim JG, Kim JM, Chang SH (2003)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ritual ceremony.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 145-154.
- Kim SM (2000)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Kyung-book area on the traditional foods. *Korean J Soc Food Sci* 16: 27-35.
- Goo KH (1999)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culture of housewives and their attitude of traditional fermented foods consumption.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 139-156.
- Koo NS (1995)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s in Taejon. *Korean J Dietary Culture* 10: 357-366.
- Kim (1995)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foods preference and consump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Food & Nutrition* 8: 293-300.
- Kim EH, Kim SR (1998) A survey on the notion and intake of kimchi among college women. *Korean J Food & Nutr* 11: 513-520.
- Lee JM, Oh SY (1996) Traditional and modern food use in Korean adul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1: 147-154.
- Lee HG, Oh MY (1995) Consciousness knowledge and food preferences for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of high school

- students in Seoul.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 65-85.
- Lee HJ (2000) A study on commercial kimchi consumption of housewives in Seoul and Chungbuk area. *Korean J Food & Nutr* 13: 221-225.
- Park YS (1998)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s in Hansan-do area. *Korean J Soc Food Sci* 14: 516-534.
- Rho JO, Woo KJ (2003) A study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rice cake in I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 1-8.
(2004년 6월 19일 접수, 2004년 8월 11일 채택)